

교권과 학생 인권

우리는 어디에 있을까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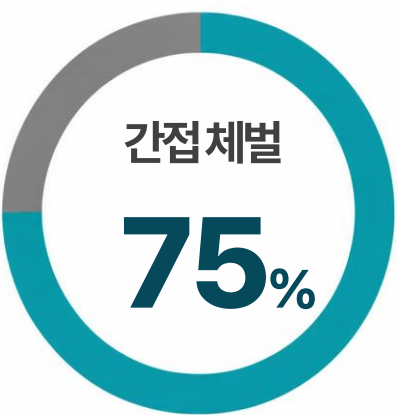


학창시절 직·간접 체벌, 전체의 75% 이상이 경험 체벌의 주된 이유는 본인 잘못보다 '단체기합·연대책임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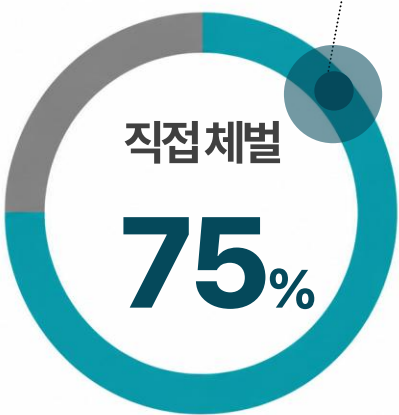
Q 학생 시절 학교에서 훈육·체벌 경험 여부 (전체 1,087명)



(언어적주의훈계, 벌점, 반성문, 상담 등)



(손 들고 있기, 운동장 돌기, 오리걸음 등)



(신체 접촉을 동반한 체벌)

연령대별 직접체벌 경험 비율

20대	(177명)	58%
30대	(198명)	78%
40대	(222명)	78%
50대	(254명)	80%
60세 이상	(236명)	79%

Q 훈육·체벌을 받은 이유 (훈육·체벌 경험 있음 919명)



단체기합·연대책임

46%

규칙 위반(지각, 복장 불량 등)

26%

성적·학업 부진

17%

교사에 대한 반항적 태도

6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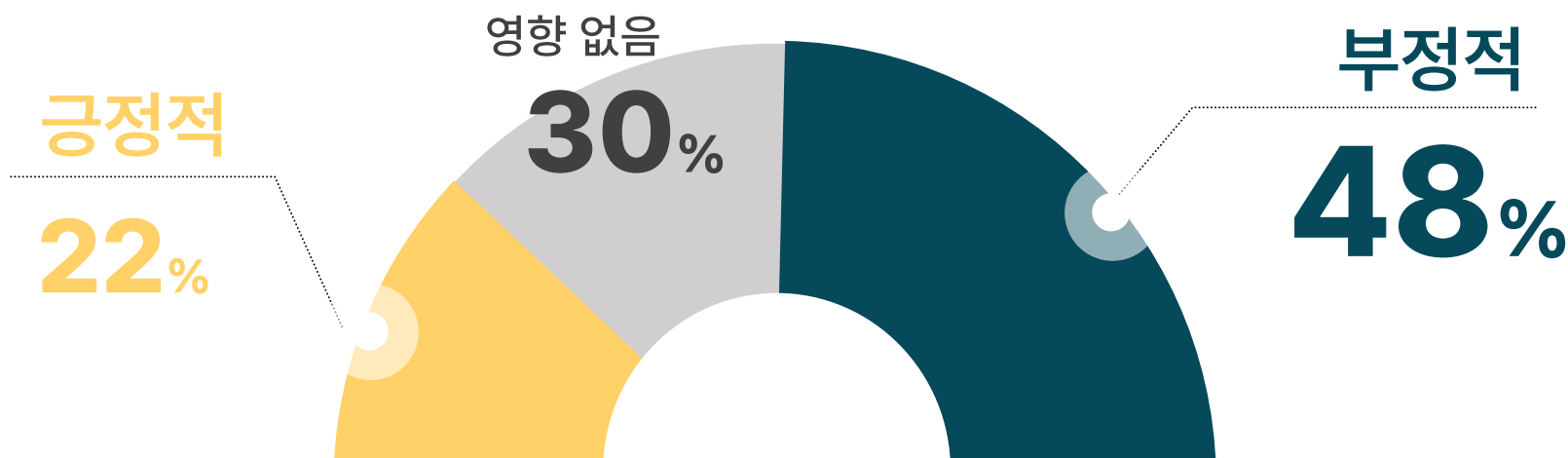
친구와의 다툼·폭력

5%

훈육·체벌 경험, 부정적(48%)으로 기억
대표적인 이유는 "모욕감·위축감 느껴서(25%)",
"잘못에 비해 과도해서(24%)"



Q 훈육·체벌 경험의 영향 (훈육·체벌 경험 있음 919명)



긍정적 영향이 큰 이유 (198명)

잘못한 행동을 인지, 반성하는 계기	36%
규칙과 책임을 배우는 계기	20%
수업태도나 생활태도를 고치는 데 도움	17%
수업 집중과 면학 분위기 조성에 필요	15%
선생님의 관심이나 지도 의도	12%

부정적 영향이 큰 이유 (442명)

모욕감이나 위축감 느낌	25%
잘못에 비해 과도한 방식이라 느낌	24%
두려움만 남고 교육적 효과는 크지 않음	22%
강압적인 지도 방식의 정당화	19%
교사나 교육기관에 대한 불신 증가	10%

학교에서 어떤 생활지도까지 허용할까?

'비신체적 지도(85%+)', '간접 체벌(72%)', '직접 체벌(51%)' 순으로 용인



Q 학교에서 생활지도 허용 정도 (전체 1,087명)

비신체적 지도

반성문, 벌점, 상담 등 공식 절차를 통한 생활지도

89%

수업 방해 물품의 일시 보관 (휴대폰, 화장품 등)

86%

학생 행동에 대한 언어적 주의·훈계

86%

수업 방해 시 자리 이동·교실 밖 분리 등 별도 지도

85%

간접 체벌

벽 보고서 있기, 손 들고 있기, 운동장 돌기 등 간접 체벌

72%

직접 체벌

손바닥·회초리 등 직접 체벌

51%

10명 중 8명, "교권 충분히 존중 받지 못한다" 교권 위축 원인, '학생 인권 피해 지도 권한 약화'(35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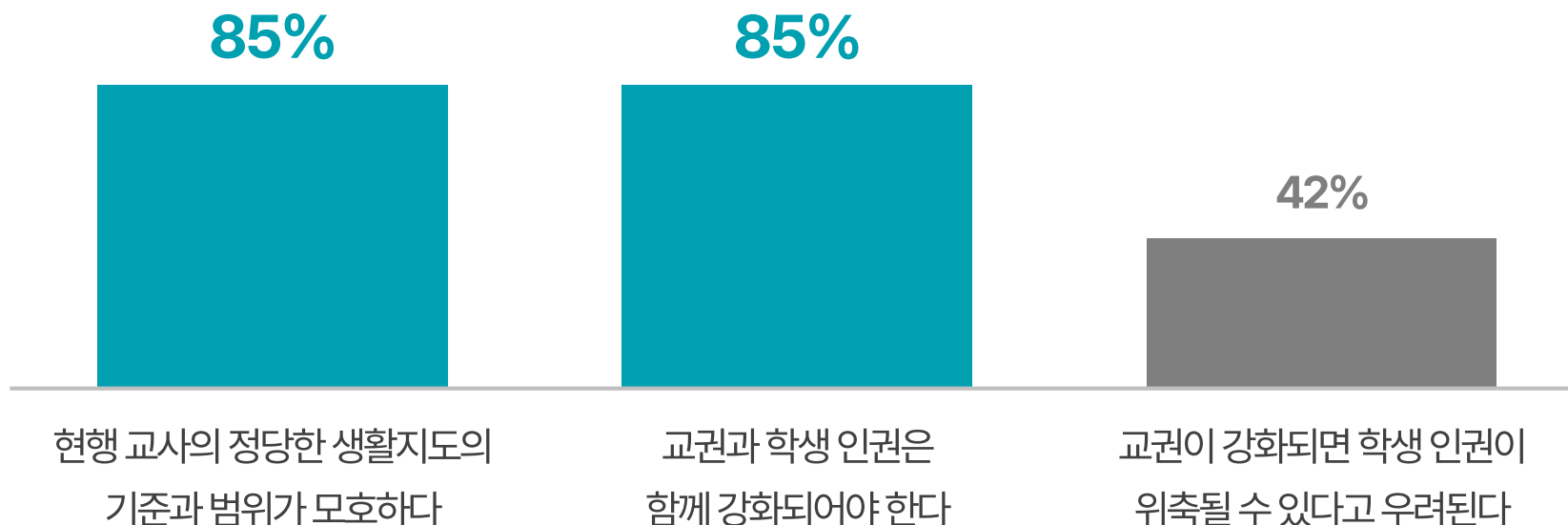
Q. 현재 교권 존중 정도 (전체 1,087명)

(존중받지 못함 응답자 872명)



✓ 학생 인권에 비해 교사의 지도 권한이 위축됐다고 느껴서	35%
✓ 정당한 생활지도도 민원·신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	28%
✓ 학교·교육청 대응, 교사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아서	18%
✓ 돌발행동·폭언 등 수업 방해 사례가 늘었다고 느껴서	11%
✓ 사교육의 강한 관리가 더 용인되는 분위기라서	6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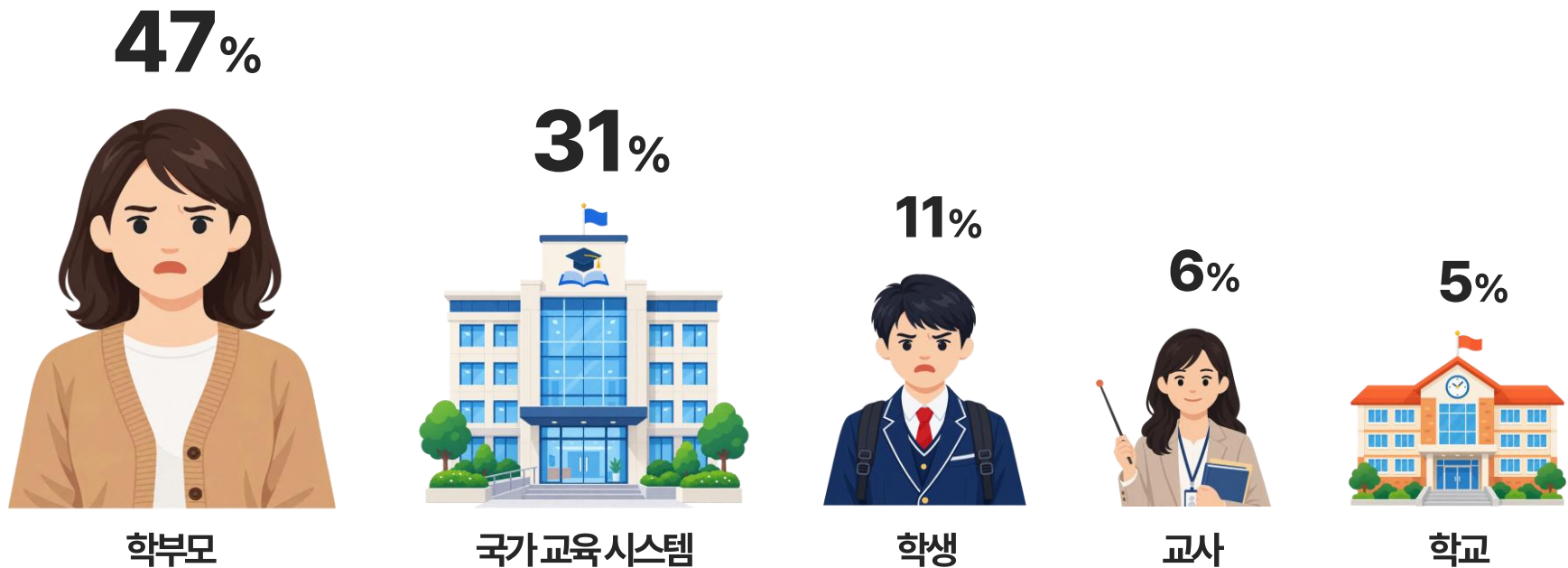
Q. 교권과 학생 인권 관계에 대한 동의 정도 (전체 1,087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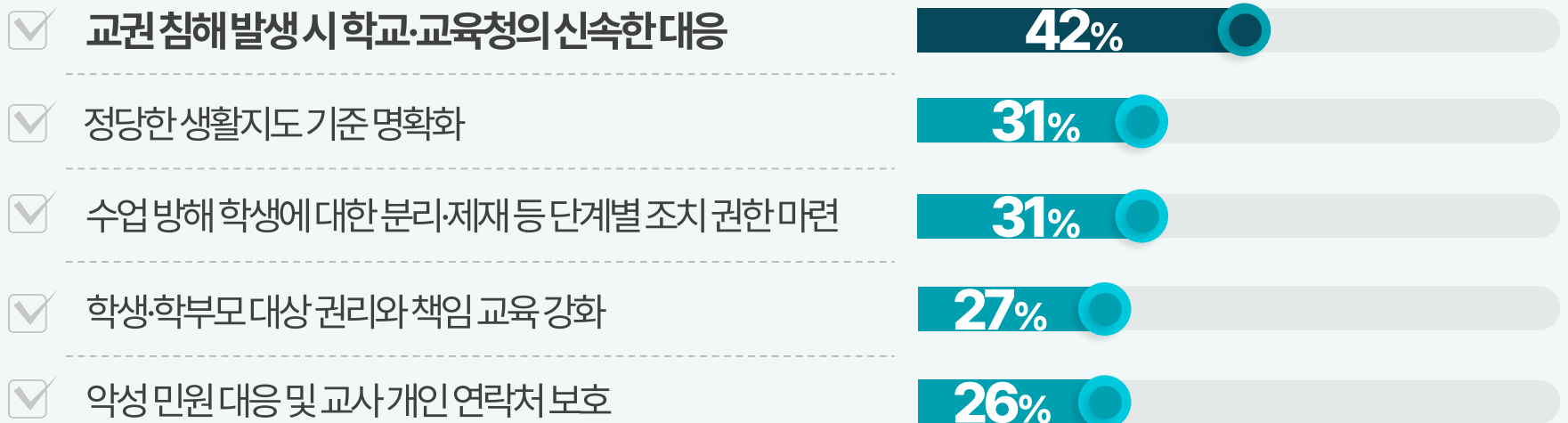
교권 침해 가장 큰 책임은 '학부모'(47%) 교권 회복 위해 '학교·교육청의 신속한 대응' 최우선(42%)



Q 교권 침해의 책임 주체 (전체 1,087명)



Q 교권과 건강한 학교문화를 위해 필요한 점 (TOP 5) (1+2순위 / 전체 1,087명)



체벌이 아닌 기준 있는 생활지도, 방치가 아닌 실질적인 교권 보호 교권과 학생 인권이 함께 존중받는 학교가 필요합니다

조사기간

2026.08.14.~18.

조사방법

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

조사대상

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,087명



케이스탯은 품질 높은 데이터 생산을 바탕으로
고객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인사이트와 컨설팅을
제공해 드립니다.

... **Kstat** ...



🏠 <http://www.kstat.co.kr>

📍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

☎ 02-6188-6000

✉ admin@kstat.co.kr